

spirit



장비 디자인에
박차를 가하다

파나마 커넥션
고속도로의 혁신

용광로 탐방기
프랑스 제철 산업

작업의 편리성을 높여 주는 EC220E 굴삭기



작업 환경이 가혹하다고 해서 작업이 어려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환경 볼보 Tier 4/Stage IV D6 엔진을 장착한 신형 볼보 EC220E는 연료 절약 효과가 우수하고 작업 중에 동력을 간편하게 전달합니다. 또한 운전실 환경이 더욱 쾌적해져 더욱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변경하여 핸들링이 더욱 단순해져 생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정기적 정비 수행도 더욱 쉬워지고 안전해졌으며, 모든 필터가 하나로 묶여 있어 지면 높이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보증 및 탁월한 사후 관리가 제공되는 EC220E를 선택하여 즐겁게 작업하십시오. 새로운 길을 찾으십시오.

www.volvoce.com



비디오 http://open.to/a/SP_EXC-E_B

Volvo Construction Equipment



프랑스 남부의 Payant PACA 딜러에서 볼보 기계를 정비하는 모습

우리 딜러들은 볼보건설기계 가장 귀중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이번 호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는 바로 전 세계 볼보 딜러들의 중요성입니다. 딜러는 단순히 장비를 판매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의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고객들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번 호의 16페이지 영국에서 보내온 보고서를 살펴보면 우리 딜러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SM Plant의 Simon Milligan 같은 경우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할지부터 구매한 제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규모의 모든 고객들이 그의 조언에 귀기울입니다.

이번 호 28페이지에서는 프랑스 남부 Payant PACA 딜러의 Olivier Marziano를 만나 장비 고장으로 고객에게 실망을 안기지 않기 위해서 정기적인 정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들어봅니다. 상단에 있는 사진이 바로 Payant PACA 정비소의 모습입니다.

지구 반대편으로 돌아가 이번 호 주요 기사(10페이지) 주인공인 파나마에서, Comercial de Motores(CDM) 딜러는 운전자 교육을 크게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DM의 고객들은 잘 훈련된 운전자들이 프로젝트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딜러들은 품질, 안전, 환경 보호 노력 등의 측면에서 고객과 협력업체들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품질, 안전, 환경 보호는 (6페이지), 볼보건설기계의 핵심 가치 관리 담당 선임부사장인 Jonas Jademyr와의 주요 인터뷰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번 호에서는 한국(20페이지)과 이탈리아(24페이지) 등 세계 곳곳의 작업 현장 인터뷰와 소식, 그리고 최근 파리에서 열린 인터마트(Intermat) 전시회에서 선보인 새로운 볼보 DD105 아스팔트 콤팩터 개발에 대한 심층 취재 기사(36페이지) 등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본 매거진은 iPhone, Android 기기, iPad 등을 이용해 다양한 동영상과 사진이 제공되는 디지털 버전으로 무료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새 소식 동영상은 **Spirit**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버전으로 보시든(인쇄 버전은 해외 독자들을 위해 13개 언어로 번역되어 제공됩니다) Facebook이나 Twitter, 또는 이메일을 통해 독자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연락처 정보는 페이지 왼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THORSTEN POSZWA
대외 커뮤니케이션
글로벌 디렉터
볼보건설기계

Thorsten Poszwa



spirit
온라인

www.volvospiritmagazine.com



Spirit - Volvo Construction
Equipment magazine



@VolvoCESpirit



Available on the
App Store
Volvo Spirit Magazine



GET IT ON
Google play
Volvo Spirit Magazine



YouTube
GlobalVolvoCE

사진: 주요 이미지 © Erik Luntang, portrait © Piet Goethals
VS55-KO

목차

- 3 **환영 인사**
볼보건설기계 딜러는 귀중한 자산
- 6 **사내 소식**
볼보건설기계의 핵심 가치 관리 담당 선임 부사장 인터뷰
- 10 **파나마**
전설적인 팬아메리카 고속도로 개수 공사
- 16 **영국**
스포트라이트: 두 개의 영국 기업과 볼보건설기계 딜러
- 20 **한국**
가족이 운영하는 채석장 기업의 안전 우선 주의
- 24 **이탈리아**
과일 재배 산업 발전을 돕고 있는 볼보의 장비
- 32 **볼보건설기계 마스터스**
글로벌 마스터 대회 과거 우승자들이 전하는 말
- 36 **신제품**
새로운 장비 처음부터 설계하기
- 40 **독일**
유서깊은 도시 독일 하멜린에 있는 볼보건설기계의 제조 센터
- 45 **볼보 오션 레이스**
볼보 오션 레이스의 Knut Frostad CEO가 얘기하는 레이스의 과거, 현재, 미래
- 49 **운전자 코너**
이탈리아의 휠 로더 전문가 Claudio Luca Piazzi



커버 스토리
프랑스 기업 André Simon이 소유 및 사용하고 있는 볼보 L220H 휠 로더 © Erik Luntung

28 프랑스
볼보 장비를 사용해 40년 넘게 사용해온 가족 기업



10



40



6



24

볼보건설기계 SPIRIT 사보
2015년 6월/7월/8월 발행 번호: 55

출판인: 볼보건설기계 SA
편집장: Thorsten Poszwa
편집: Krista Walsh; Mehtap Teke

편집 제작 및 디자인: CMDR sprl
www.cmdrcoms.com

도움을 주신 분들: John Bayliss, Julia Brandon, Julian Gonzalez, Nigel Griffiths, Emilee Jennings, Patricia Kelly, Tony Lawrence, Cathy Smith
사진: Dan Bigelow, Jennifer Boyles, Andrew Dixon, Piet Goethals, Erik Luntang, Daniele Mattioli, Hans-Joachim Petrus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Volvo Spirit Magazine, Volvo Construction Equipment, Hunderenveld 10, 1082 Brussels, Belgium 또는 이메일 volvo.spirit@volvo.com으로 보내주시시오

판권 본사 소유. 볼보건설기계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출판물의 내용(본문 내용, 데이터, 그래픽)을 그 어떤 형태나 수단으로 무단 복제하거나 데이터 검색 시스템에 저장하거나 송신할 수 없습니다.

진심을 담아

볼보건설기계의 핵심 가치 관리 담당 선임 부사장은 사회 생활을 시작한 후 대부분의 시간을 Volvo Group과 함께했다

글: Patricia Kelly

약 9개월 전, Jonas Jademyr 부사장은 스웨덴 서쪽 해안에 위치한 차 없는 도시 예테보리 교외에서의 한적한 전원 생활의 즐거움을 떠나 북적이는 브뤼셀 도심으로 왔습니다. 다언어, 다문화를 특징으로 하는 벨기에의 수도로 오는 많은 다른 외국인들처럼, 악명 높은 브뤼셀 도심 운전 적응하는 것이야말로 그가 경험한 가장 큰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다와 쉽게 배를 탈 수 있는 기회가 그립다는 것을 제외하면 Jademyr 부사장은 브뤼셀처럼 국제적인 도시의 심장부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이 없을 때는 이웃 국가를 쉽게 방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로 들면서, "항상 새로운 것을 해 보는 것을 좋아하고 시간이 날 때는 새로운 탐험도 즐기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Jademyr 부사장은 "단순히 회사의 산업 부문뿐 아니라"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전체 비즈니스를 이해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예테보리에서 브뤼셀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테보리에서 맡았던 직무는 엔지니어링 기반 직무로, 실무자와 관리자로서 주로 제품 개발과 프로젝트 관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커리어 전체를 예테보리에서 보냈으며, 가족과 친구들을 모두 남겨두고 와야 했기 때문에 49세의 Jademyr 부사장으로서 지난 7월, 처음으로 고향 스웨덴을 떠나 외국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하면서,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도전이었고 정말 재미있게 지내고 있다"고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핵심 가치

Jademyr 부사장은 2013년 가을부터 현재의 경영관리직을 맡아 벨기에로 이사하기 전 약 1년간은 스웨덴과 벨기에를 오가며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는 볼보건설기계 내에서 볼보 그룹의 품질, 안전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원칙을 수립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가치는 회사의 모든 업무에 스며들어 있으며, →



그는 운영 개발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대외 관계에 이르기까지 기업 업무의 모든 측면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결정과 행동을 결정짓는 이러한 가치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바로 제품과 최종 사용자, 즉 고객입니다.

Jademyr 부사장은 "볼보의 핵심 가치는 우리가 브랜드 구축의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며, 회사의 모든 부문에 대한 우리의 비전은 품질, 안전, 환경 보호 분야에서 최고의 기업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볼보건설기계는 현재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모든 핵심 가치 부문에서 리더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면서 그 입지가 도전을 받고 있는 만큼, 제가 맡은 일의 전략적 측면은 고객들의 가치가 무엇이고, 경쟁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사회와 기술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이를 모두 종합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Jademyr 부사장은 세 가지 가치 중에서 전통적으로 품질이 가장 경쟁이 심한 부문이지만 현재 안전과 환경 보호와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모두 품질 면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안전과 환경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회는 기업들이 점점 더 많은 환경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질 것을 기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들이 앞으로 사업 활동을 한다는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하고 장비 운전자들에게 안전하며 사회 구성원들에게 안전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이러한 분야에 더욱 집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위치

Jademyr 부사장은 결국 고객들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되겠지만 볼보는 기업의 핵심 가치라는 측면에서 경쟁사들보다 앞서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볼보는 이미 오랜 기간 이러한 가치를 기반으로 기업 활동을 펼쳐왔기 때문에 이 가치들은 이미 우리 머릿속에 뿌리내려 기업 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강점을 경쟁사들이 따라 오기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릴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말합니다.

Jademyr 부사장은 이에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든 일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고객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의 주요 고객들을 비롯해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으며, 이들은 실제로 우리 회사가 직업 건강과 안전 측면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우리 회사가 외부 감사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도전 과제 중 하나는 핵심 가치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고객들을 위해 해당 가치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모든 유형의 고객들에게 적합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Jademyr 부사장은 일반적으로 서유럽과 북미 등 성숙한 시장 고객들의 경우 환경 친화적 제품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반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품에 경쟁이 집중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의견입니다. 그는 "앞으로 사업 활동을 한다는 것은 사회 전체에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을 예로 들면, 이제 생산량에 치중하기 보다는 양질의 제품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환경 보호에도 점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이라이트

다른 볼보 엔지니어들과 마찬가지로 Jademyr 부사장 또한 볼보 입사 첫 해에는 회사와 회사 제품에 대해 배우면서 조립 라인 근로자로 근무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곳이 에테보리에 있는 볼보 트럭이었고 그곳의 엔진 개발 부서에서 6년을 더 보냈습니다.

26년차 볼보 베테랑인 Jademyr 부사장은 예전에 다른 엔지니어링 회사(그 회사의 주요 고객 중 하나가 볼보건설기계였습니다)에서 2년간 근무한 후 1996년에 다시 볼보 트럭의 엔진 개발 부서로 돌아왔습니다.

Mack과 Renault의 인수로 대규모 조직 정비가 이루어졌고, 이는 볼보 파워트레인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Jademyr 부사장은 이곳에서 처음 제품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이후 볼보 그룹 헤비듀티 엔진에서 프로그램 관리직을 역임했으며, 2005년 다시 볼보 트럭에서 제품 라인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2011년 Jademyr 부사장은 볼보 FH 트럭 라인을 맡아 중대한 기술 업그레이드를 완료하면서 2012년의 재런칭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Jademyr 부사장은 FH 재런칭을 위해 애썼던 2년 반 동안의 기간을 자신의 커리어에 있어 두 가지 하이라이트 중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시 볼보 트럭 최대의 프로젝트였고, 볼보 그룹 전체로 봐서도 큰 프로젝트였죠. 당시 저는 임원직을 맡고 있다가 다시 운영 실무 업무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로써는 급하게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여러 제품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엄청난 대규모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앞으로 사업 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한 제품을 개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생의 업적

Jademyr 부사장은 D9 엔진 개발 프로젝트에서 자신이 맡았던 기술 제품 리더라는 역할에 얘기하면서도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콘셉트 단계부터 런칭까지 38개월간 계속된 작업이었고 이는 그에게 흔치 않은 기회였습니다. "새로운 엔진 개발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엔진 작업은 주로 개선이나 발전 작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1989년에 처음 엔진 개발을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것이 매우 기계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전자적인 부분은 거의 없었죠. 요즘은 제품 효율성과 애프터마켓에 더 중점을 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요즘은 리소스나 제품 개발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볼보 그룹 자체가 훨씬 더 글로벌화되었습니다. 기술도 훨씬 더 발달하고 복잡해졌죠."

"조직 구조도 더 복잡해졌고요.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고 필요한 변화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리소스나 업무 수행 방식 면에서 훨씬 더 큰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Spirit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Spirit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인터뷰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번영으로 가는 길

전설적인 팬아메리카 고속도로의 전체 개수 공사에는
총 28대나 되는 볼보 장비가 사용되고 있다 →

글: Julian Gonzalez

사진: Dan Bigelow



광활한 바다를 연결하며 녹음이 우거진 풍경과 수로에 걸쳐 77km 길이로 뻗어있는 파나마 운하의 위대한 토목 공학이 어떤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시대의 놀라운 인공 구조물이 완성된 지 101년이 지난 현재, 볼보건설기계는 파나마의 주요 운송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팬아메리카 고속도로의 현대화 공사에 참여함으로써 파나마 전체를 가로지르는 또 하나의 핵심적인 통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비용이 미화 9억 달러(8억2천3백90만 유로)가 넘는 이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Odebrecht는 서부 도시 산티아고(Santiago)와 다비드(David)를 연결하는 길이 185km의 고속도로를 개수하고 넓히기 위해 파나마 정부가 고용한 5개 기업 중 하나입니다.

Odebrecht는 심하게 노후된 이 고속도로 중 가장 긴 구간인 산티아고-비헤이(Vigui) 구간의 공사를 맡았습니다. 이 구간의 전체 길이는 파나마 운하의 전체 길이와 6km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71km에 달합니다.

Odebrecht의 본사 커뮤니케이션 담당 Victoria Palacios는 "이 프로젝트로 혜택을 입는 커뮤니티가 많아질 것이며 [7곳], 통근자들이 이 길을 이용해 코스타리카까지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 산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외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양한 방식을 통해 여러 커뮤니티를 하나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저희에게도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라 할 수 있습니다."

조화

브라질 살바도르(Salvador)에 본사를 두고 있는 Odebrecht는 전 세계 4개 대륙 21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현재 15개 업종에 진출해 있습니다. 건설업 분야에서 광범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Odebrecht는 산티아고-비헤이 프로젝트에서 EC220DL 굴삭기 여덟 대, EC380DL 굴삭기 세 대, MC70C 스키드 스티어 로더 두 대, G940 모터 그레이더 다섯 대, BL60B 백호 로더 열 대 등 다양한 볼보 장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스팔트 패치와 콘크리트가 섞여 있고 여기 저기 구멍 난 낡은 고속도로는 이러한 볼보 장비를 통해 2차선 도로에서 4차선 도로로 확장되고 새로운 차량 교차 네 개와 보행자 교차 일곱 개를 추가하게 될 것입니다. 프로젝트 완료까지 3년 반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Odebrecht는 2017년 8월이라는 공사 기한을 맞추면서 기대하는 결과를 달성하는 데 볼보건설기계가 이상적인 파트너가 되어 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Odebrecht의 산티아고-비헤이 프로젝트에서 장비 감독관을 담당하고 있는 Claudio Da Silva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워낙 공사 기간이 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연료비도 엄청납니다. 장비 작동 시간은 5,000 내지 6,000시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장비 1대의 소비 연료를 시간당 1갤런으로 제한한다고 가정한다면 엄청난 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Da Silva의 설명처럼 낮은 연료 소비량과 첨단 장비는 매우 이상적인 조건입니다. 하지만 장비 운전자들이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이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Da Silva는 같은 크기의 굴삭기들에 비해 주기 완료 시간이 가장 짧은 EC380DL 굴삭기를 예로 듭니다. 산티아고-비헤이 구간 공사에서는 총 5,387,018m³에 달하는 흙을 파내서 회전한 →



Odebrecht의 장비 감독관 Claudio Da Silva



현장에서 볼보 MC70C 스키드 스티어 로더 두 대가 사용되고 있다



볼보건설기계의 Justo Santos



프로젝트에 볼보 모터 그레이더 다섯 대가 사용되고 있다



볼보 딜러 CDM의 German Diaz



프로젝트에는 총 11대의 볼보 굴삭기가 사용되고 있다



볼보 BL60B 백호 열 대 중 일부는 이 고속도로 구간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후 하적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숙달된 장비 운전자가말로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차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작업 속도가 빨라요. 운전자들의 작업 속도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에 지역 볼보건설기계 딜러를 통해 저희 운전자들이 훈련을 좀 더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Da Silva가 말합니다. 이 지역의 볼보건설기계 딜러 Comercial de Motores SA (CDM)는 운전자 교육의 중요성과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운전자 교육의 긍정적인 기여도에 대해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볼보건설기계 중남미의 도로장비 담당 지역 매니저인 Justo Santos는 "장비를 올바른 곳에 위치시키고, 흙을 떠올려 회전한 다음 트럭에 싣는 방법을 아는 잘 숙달된 운전자만 있다면 연료 소비량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중남미 국가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잘 훈련된 운전자를 구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주 잘 훈련된 운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급여를 주는 일자리를 찾아 떠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종법을 마스터하기 아주 쉬운 장비가 있다면 어떤 운전자라도 2-3시간만에 훈련을 시킬 수가 있으며, 이 경우 인력 변동에 대한 문제 없이 계속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의 열기

파나마 해안에 열대성 태풍이 발생하는 시늬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1,600명의 직원들은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쉼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Odebrecht는 최상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해 모든 볼보 장비에 폐쇄형 운전석을 갖추도록 합니다. Da Silva는 "다른 브랜드의 장비도 보유하고 있지만, 볼보 운전석의 편안함에 비할 바가 못됩니다. 볼보 장비 운전석에는 에어컨과 라디오가 갖춰져 있고 바깥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라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운전자의 안전과 편안함이 작업의 효율성을 더 높입니다." 운전자들 중 지역 딜러에게 볼보 장비 운전석에서 작업하는 것은 우주선 안에서 일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EC380DL 굴삭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운전자 Jose Montezuma도 이에 동의합니다. "사실 이 볼보 장비의 편안함은 어떤 것보다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 좋아요."

항시 대기

볼보건설기계가 첨단 기술과 연료 절감 측면에서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Odebrecht 입장에서는 볼보건설기계가 제공하는 지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838,373m³에 달하는 포장 작업과 기초 작업, 63,095m³의 콘크리트 작업과 400,000여 톤의 아스팔트 작업을 맡은 데다 수도 파나마시티는 동쪽으로 3시간 이상 떨어져 있다보니, Odebrecht는 수도에서 수시간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장비를 정비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답을 들을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대해 Da Silva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볼보건설기계의 유통사가 가까이 있다는 점이 아주 좋습니다. 전화 한 통만 하면 바로 달려와서 도와주니까요.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부품을 모두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보 장비들을 계속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모든 장비에는 폐쇄형 운전석이 장착되어 있다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아주 안심이 됩니다." CDM 딜러의 German Diaz는 "Odebrecht로부터 저희 지원 시스템과 저희가 고장난 부품을 교체하는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훨씬 빠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고객으로부터 들으니 정말 뿌듯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볼보건설기계의 Justo Santos는 "볼보 장비를 한 대 판매하면 그 장비 부품이 즉시 필요하게 될 때를 대비해 해당 부품도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Odebrecht와 계약을 맺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열린 길

팬아메리칸 고속도로 중 이 구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수십 년간 도로의 움푹 패인 곳을 피하느라 튀어오르고 급회전하고 급정거하는 일이 습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파나마로 바나나를 잔뜩 싣어 운반하는 소형 트럭들은 마치 수비수를 이리저리 피해가며 골대를 향해 달려가는 축구선수들을 연상시킵니다. Odebrecht는 볼보 장비의 도움을 받아 무게나 거리로 측정하는 목표가 아닌,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에 따라 측정이 가능한 자체 목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근처에서 살고 있는 Diaz는 "예를 들어 아이들을 학교까지 태워주고 부모들이 통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집에서 그렇게 일찍 나설 필요가 없고 집에 늦게 도착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주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진보, 기회를 의미합니다. 주변의 다른 지방과 도시에도 더 쉽고 더 빠르게 접근하고 출퇴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산티아고와 다비드의 통근 시간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

이 프로젝트는 국내외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Spirit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iPhone, iPad, Android 기기에서 Spirit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파나마 보도 동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elbec Civils Ltd가 사용하는 볼보 ECR50D 및 ECR88D 굴삭기



볼보 고객 Rod Cockette(왼쪽)와 볼보 딜러 Simon Milligan

사진: Andrew Dixon

업무 관계

3개의 영국 기업이 오랜 경험으로 신뢰를 쌓은 파트너들과 비즈니스를 구축해 가고 있다

글: Tony Lawrence

겉으로만 봐서 Rod Cockette와 Leigh Stevenson은 별다른 공통점이 없어 보입니다. 한 사람은 토목 전문가이고 다른 한 사람은 주택 건설이 전문입니다. Stevenson은 30대, Cockette는 50대입니다. 영국에서 살고 있는 지역도 다르며 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소형 건설 장비를 소유 및 운전하는 가족 소유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손에 흙을 묻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이제 막 새로 볼보 건설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Rod Cockette는 Kelbec Civils Ltd.를 창업한 이래 15년간 볼보 장비를 보유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와 단 둘이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딸 하나를 포함해 40명의 직원들이 영국 웨스트 미들랜드의 레드치(Redditch)에 있는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Cockette의 작업 팀 중 하나는 버밍엄 인근 솔리힐(Solihull) 타운 센터 거리를 재개발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ECR50D와 ECR88D 새 굴착기 두 대, DD15 더블드럼 롤러 한 대가 닳아버린 보도와 도로 경계석을 깨서 제거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회복세

Cockette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지난 18개월 사이에 보유 장비 대부분을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경제 침체로 건설 부문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모두 걸러지고,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볼보 장비들은 정말 훌륭합니다. 좌우 선회 반경이 짧고, 최신 티어 IV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리프팅을 위해 체크 밸브도 장착되어 있지요. 우수한 신뢰성이나 저렴한 유지 비용, 실속의 측면에서 경쟁사들과 비교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볼보 장비는 다운타임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같은 작은 회사 입장에서는 다운타임이 있으면 굉장히 치명적이죠.

촉박한 기한 내에 일을 해내야 하기 때문에 장비들도 제 역할을 다해 주어야 합니다."

Cockette는 장비와 관련해 다른 의견을 듣고자 할 때는 직원들과 상의합니다. 이 회사에서 10년간 근무한 작업 감독 Grant Turner는 볼보 장비를 운전하면서 이 일을 배웠습니다. Turner는 "Rod는 저희 의견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물론 다른 좋은 장비들도 많지만 볼보야말로 최고죠" 라면서 "매끄럽고 반응성이 좋으며, 파워 면에서 동급 대비 우수할 뿐 아니라 경제성도 뛰어납니다. 특히 하루 종일 운전대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운전석의 안락감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람직한 선택

이곳에서 북쪽으로 약 112km 떨어진 체스터필드(Chesterfield) 부근에서는 Leigh Stevenson이 볼보 EC27C 소형 굴삭기 운전석에 앉아 나무 뿌리를 들어내고 흙을 옮기면서 클레이 크로스(Clay Cross)의 새 건축 현장의 기초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Stevenson의 부친인 Clive Stevenson이 운영하는 Kirk Hallam Homes는 이곳에 아홉 채의 주택을 지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Cockette의 경우와는 달리 Stevenson은 볼보 장비가 처음입니다. Stevenson은 볼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EC27C를 구입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입한 첫 볼보 장비만 제대로 잘 굴렀다는 확신이 들어요."

Stevenson의 아버지는 동료 이사 두 명과 함께 직원 10명의 사업체를 운영합니다. 동료 이사는 그의 세 아들 Jamie, Leight, Ryan으로, 모두 가족 회사에서 함께 ▶



볼보 딜러인 Simon Milligan이 DD15 더블드럼 롤러를 시운전하고 있다



Leigh(왼쪽), Ryan Stevenson(오른쪽)과 볼보 딜러 Simon Milligan(가운데)



Leigh Stevenson이 볼보 EC27C 소형 굴착기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Stevenson의 아버지는 경쟁사 제품을 원했습니다. Leigh Stevenson은 세 개 제조사의 장비를 시운전해 본 후 동종 업계에 있는 친구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Stevenson은 이에 대해 "친구는 자신이라면 볼보를 사겠다고 말하더군요"라면서 "운전은 거의 제가 하는데, 볼보는 운전 감이 아주 좋습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장비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강력합니다. 시험 운전을 해보았을 때 구멍을 판 다음 그 위로 장비를 몰고 들어갔습니다. 다른 모델 중 하나는 다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뒤로 후진해서 나와야 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볼보는 운전석 내부와 자리가 편안하고 전체적인 구조가 탁월할 뿐 아니라 접착구를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화됩니다. 소형 장비가 장난감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건 정말 성능이 대단합니다.

"아버지도 장비 구입 후에 시운전을 해 보셨는데 이제는 제 말에 동의하세요. 볼보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업 진출

Stevenson은 볼보를 구입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Simon Milligan입니다. Milligan과 그의 아내 Sandie는 볼보건설기계 딜러와 두 아들 Sam, Mikey를 포함해 가까운 친인척으로 구성된 가족 회사인 SM Plant Ltd. 판매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건설 장비 제조사 및 유통사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은 Milligan



가족 회사 Kirk Hallam Homes가 처음 구입한 볼보 장비다

은 영업 이사직을 그만두고 본인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볼보건설기계에 있는 지인이 연락을 해왔고 Milligan은 그렇게 사업 영역을 새로이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5년차에 접어드는 Milligan의 회사에는 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6명은 볼보건설기계 교육을 받은 서비스 기술자입니다.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사업은 버밍엄과 럭비(Rugby)에 차고를 한 곳씩 두고 있으며, 현재 버크셔 애스콧(Ascot)에 장남 Sam이 세 번째 차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높은 기대 수준

Stevenson이 Milligan에게 자신이 원하는 모델인 2.5톤 ECR25D를 얘기했을 때 Milligan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Stevenson은 "이유를 물어 본 유일한 사람이었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주문서를 꺼내더군요. 우리는 장비가 어떤 용도에 사용될 것이고, 안전을 고려해 선회 반경은 얼마나 되어야 하며, 장비를 여러 현장에서 어떻게 이동시킬 것인지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Simon은 우리에게는 약간 더 큰 EC27C가 잘 맞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이 맞았던 거죠." Milligan은 볼보 브랜드 자체가 모든 것을 대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볼보를 생각할 때 품질, 안전, 환경 보호를 떠올립니다. Milligan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브랜드와 핵심 가치를 지지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우리 브랜드의 고객은 정말 다양합니다. 소형 장비와 소유주 및 운전자들은 그 중에서도 매우 독자적입니다. 이들에게는 고유한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이죠. 사람들은 결정을 빨리 내립니다. 일단 볼보로 결정하고 나면 바로 배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오전 6시에 문제가 있다고 전화를 하며 6시 1분까지는 현장으로 와 줄 것을 기대합니다. 성공적인 소유주 및 운전자 고객들의 경우 수익율이 낮은 사업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지연이 생기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볼보는 글로벌 브랜드이며 볼보 사람들은 절대 문제를 모른척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단순히 장비를 팔거나 고객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을 추천하고 서비스 계약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고객에게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고객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저는 이 분야를 잘 압니다. 저는 매번 기대치를 넘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기대치를

충족시킨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기대치를 넘어선다는 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Rod Cockette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장비를 직접 관리하지만 실제 정비와 백업은 전문가들에게 맡깁니다.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SM Plant에 전화 한 통만 하면 됩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러면 다 해결이 될 거라는 걸 알거든요. Simon이 '제가 해결할게요'하고 얘기하면 저는 그냥 잊어버리고 있으면 됩니다." ☞

**볼보는 글로벌
브랜드이며 볼보
사람들은 절대 문제를
모른척하지 않습니다**

돌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는 자세

안전은 채석장 운영의 가장 튼튼한 기반 →

글: *Emilee Jennings*

사진: *Daniele Mattioli*



한국의 동쪽에서 겨울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즈음 군위 공장 사암 채석장에서는 이미 장비 운전자들이 바쁘게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볼보 EC700C 크롤러 굴삭기와 A40F 굴절식 험지트럭들이 그날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현장 이곳저곳을 바쁘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입니다.

대한민국 경상북도에 위치한 군위 채석장은 보광산업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이곳에서는 하루 11시간씩 주 6일 동안 사암 채취 작업이 진행됩니다. 일단 퇴적암을 작은 조각으로 분쇄하면, EC700C 굴삭기가 그 조각들을 모아 A40F 험지트럭에 싣습니다. 그런 다음 이 돌을 다른 곳으로 옮겨 더 작은 조각돌과 모래 가루로 분쇄한 후 레미콘 공장으로 보냅니다.

안전 제일

2년 전 이 활기차고 부지런한 산업 현장에서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실무 진행 상황을 감독하는 보광산업의 박병운 CEO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직원들의 안전을 매우 강조합니다." 박병운 CEO는 운전자가 일상적인 작업 수행 중에 갑자기 장비 충돌 사고를 일으켰던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서 "볼보 장비 덕분에 당시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족 소유의 채석 기업인 보광산업에서는 안전이 가장 최우선적 고려 사항입니다. "저는 안전이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작업 중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 문제에 대해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족 기업

30명의 생산직 직원과 아홉 명의 사무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 430,000m²가 넘는 이 사암 채석장은 A40F 세 대와 EC700C 네 대 등 모두 7대의 볼보 장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42세인 박병운 CEO는 2004년 이곳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부터 이곳을 관리해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30년 전 채석장 사업을 시작하셨고, 제 동생이 다른 곳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자회사죠."

보광산업의 사암 생산 공정은 크게 채석과 가공이라는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암 퇴적층에 접근하는 것으로, 장비 운전자가 돌에 작은 금을 찾거나 만들어서 암석을 채취합니다. EC700C 운전을 맡고 있는 조규성 씨는 자신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바윗돌이 분쇄기에 들어가기 전에 큰 돌을 골라내야 합니다."

그러면 A40F 험지트럭이 돌들을 그라인더로 가져가고, 거기서 필요한 크기로 돌을 가공하여 최종 목적지로 운반합니다.

박병운 CEO에게는 이처럼 바쁘게 돌아가는 현장에서 생산성과 비용 효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박병운 CEO는 볼보를 선택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연료 효율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료 비용 절감을 위해 2012년 5월부터 볼보 장비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굴삭기가 험지트럭에 돌들을 싣는



현장에서 사용되는 A40F 굴절식 험지트럭 세 대 중 한 대

저희는 안전을 매우 강조합니다

보광산업 박병운 CEO



운전자 조규성 씨

저는 볼보가 다른 경쟁사 제품에 비해 연료 효율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얘기를 자주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EC700C 굴삭기는 매우 우수하고 강력한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진의 관점에서 볼 때 채석장이 매끄럽게 돌아가는 데 있어 안전과 효율성이 중요한 요인이지만 장비 운전자 입장에서는 운전석에서의 편안함 또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조규성 씨는 매일 작업을 하면서 운전석에서 느끼는 편안함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운전 레버가 정말 부드럽고 조종하기 쉽습니다. 다른 장비에 비해 조종하기 때문에 운전할 때 피로감도 덜합니다."

채석장에서 4년간 근무해온 조규성 씨는 여유로운 공간, 안전성, 편안함 때문에 볼보 장비의 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늘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매일 작업을 해야 하는 운전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

Spirit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iPhone, iPad, Android 기기에서 Spirit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채석장 보도 동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풍성한 결실의 파트너십

새 저수지 건설로 활황인 이탈리아 과수
업계가 활짝 꽃피고 있다 →

글: John Bayliss

사진: Jennifer Boyles



Miglioramento Fondiario Consortium의 Carlo Brentari 사장

사과 과수원 전용 인공 호수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저수지들 중 한 곳의 공사 현장

사과는 2천 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이탈리아 북부 트렌토(Trento) 지방의 주산물이었습니다. 과일 재배자들은 대부분 소규모의 지역 생산자들로, 수백 년간 가족 단위로 과수원을 운영해온 사람들입니다. 발디논 계곡(Val di Non Valley)의 최저점은 해발 500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해발 1,000m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주변 지역과 기후가 다른 미기후 지역인 이곳에서 재배되는 사과는 독특한 풍미와 강렬한 색상, 아삭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1980년대, 재배농가들은 시장이 실제 이 지역에서 재배되지 않은 과일들로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곡의 재배농가들은 지역 생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에 사용할 이름을 등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멜린다(Melinda)'가 그 이름으로 선정되었고, 조합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정책은 과수 재배자들이 권한으로 남겨두었지만 멜린다 브랜드의 소유권은 조합 협회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곳 사과는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지역의 성장은 국가적인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탈리아 내 다른 지역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물의 힘

하지만 농업의 성장과 함께 생산을 위한 해결 과제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성장철에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공급이 가능한 수원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과수 농가의 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현재 발디논 사과 과수원이 내려다 보이는 산 중턱에 두 개의 거대한 저수지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2010년 세븐 라치즈(Seven Larches) 구역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2015년 주요 공사가 완료되면 삼십만 입방미터의 물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지역의 토지를 개선하기 위한 사유 법인체인

Miglioramento Fondiario Consortium의 Carlo Brentari 사장은 이 프로젝트가 방대한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계곡에 사과 과수원 전용 인공 호수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볼보 굴삭기 부대가 새로운 물길을 만들기 위해 약 400,000m³의 흙을 운반하면서 막강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물은 해발 1,100m 높이의 산속 수원에서 끌어와 저수지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중력의 힘을 빌려 물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일정하게 계곡 바닥의 사과 과수원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Brentari 사장은 "2015년에는 테스트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저수지를 가득 채운 다음, 다시 물을 완전히 빼서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할 것입니다"라고

새로운 E 시리즈 굴착기는 더 민첩하며 연료 소비량도 적습니다

설명합니다. "저희 팀 예상으로는 2016년 3, 4월까지의 정상 작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볼보의 EC480E 시리즈 굴삭기(그중 하나는 2014년말에 구입)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 활발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용도에 꼭 맞는 장비

최신 모델은 유압 시스템 내 흐름과 압력 손실을 줄여 주는 볼보만의 고유 ECO 모드를 장착해 탁월한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더불어 견고한 4단계/티어 4 파이널 엔진과 강화 차축을 갖추고 있으며, 조작 장치를 적절하게 배치한 운전석의 인체공학적 설계로 운전자에게 편안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EC480D, EC250D와 신 EC480E는 저수지 바닥에서 흙더미를 파올려 운반을 위해 덤프트럭에 싣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파낸 흙더미 중 일부는 저수지 주변 경관을 꾸미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는 다른 곳으로 가져가 가공하여 건설 자재로 만듭니다.

피에메 계곡(Fiemme Valley)에 있는 건설 관리 업체 Misconel 본사에서는 대량 용도 변경 작업이 진행됩니다. 여기서도 L250G 휠 로더와 EC300D 굴삭기 등 다양한 볼보 장비들이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회사 소유주 Giulio Misconel 은 볼보건설기계 장비에 매우 만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장비들이 필요했는데, 그러다보니 볼보 장비를 많이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종 카테고리 내 다른 장비들에 비해 더 민첩하고 연료 소비량도 적어서 최신 시리즈로 나오는 신형

장비들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신형 E 시리즈 굴삭기들이 저희 프로젝트 요구에 딱 맞았죠."

Misconel은 볼보가 품질, 안전, 환경에 두는 높은 가치에 맞게, 자신도 이 지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매우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피에메 계곡은 세계 스키 크로스 챔피언십 대회가 세 차례나 열렸던 곳이고, Misconel도 새로운 활강, 점프 시설 및 그 외 관광객 시설 개발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목표는 기존의 자연 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양질의 환경을 새로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사과 생산량

생태적 지속가능성은 이 지역 사과 재배 산업의 성공의 열쇠입니다. 매년 3십만 톤이 넘는 발디논 사과가 수확됩니다. 이는 트렌티노(Trentino) 지역 전체 사과 생산량 중 60% 이상, 이탈리아 전체 사과 생산량의 10%, 그리고 유럽 전역에서 생산되는 전체 사과 생산량의 5%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멜린다 사과의 약 1/4은 수출됩니다. 그에 따라 사과 컨소시엄의 매출도 함께 증가해 연매출이 1억 6천만 유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세븐 라치즈 저수지와 그와 연계된 수원 분지는 향후 사과 재배 산업의 성공을 지속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Spirit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Spirit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동영상 리포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강철 같은 유용함을 갖다

40년 이상 볼보 장비를 사용해오고
있는 가족 소유 및 운영 기업 →

글: Cathy Smith

사진: Erik Luntang



André Simon CEO 인 Jean-Paul Simon(왼쪽)과 볼보건설기계 딜러 Payant PACA의 Olivier Marziano

볼보 크 화물 수송선 디아만티나(Diamantina)는 미국 버지니아 주 해안 도시 노포크(Norfolk)에서 대서양을 건너와 프랑스의 포쉬어메르(Fos-sur-Mer)의 부두 깊숙이 정박해 있습니다. 대형 크레인들이 수송선에 실린 8만 톤의 석탄을 하적해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ArcelorMittal 철강공장의 용광로로 실어나를 수 있도록 부둣가에 내려놓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이 도시는 세련된 이웃 도시 니스(Nice)나 생트로페(St. Tropez)에는 비할 바가 안 되지만, 눈길을 사로잡는 화려함은 없어도 흥미롭다는 면에서는 그에 견줄만 합니다.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루는 컨베이어가 석탄을 긴 저장 구역으로 옮기면, 볼보 L180H 휠 로더가 그 석탄을 퍼올려 작은 더미로 쌓아 올립니다. 휠 로더들은 매우 급격한 경사 언덕을 힘차게 달리면서 석탄을 10m 높이로 깔끔하게 쌓아올립니다.

또 다른 저장 구역에는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조심스럽게 쌓아올린 피라미드들이 보이는데, 이것은 각종 광물 분쇄물들로 산화철이 적색과 주황색을 띠고 있어 마치 거대한 향신료 시장 같은 모습입니다.

현장 책임자 Bruno Gilles는 "강철 제조라는 것은 요리하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넣어야 하니깐요"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대규모로 진행됩니다. 매년 8백만 톤에 달하는 석탄과 광물들이 부둣가에서 철강 공장으로

옮겨지며, 이 모든 작업을 지역 기업인 André Simon SARL이 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1972년에 이 공급 현장 관리 계약을 수주한 이래 볼보 장비만을 사용해왔고, 그 수가 약 300대에 이릅니다.

유연성

"이곳에서는 장비들이 곱게 다루지 않습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작업에 투입되는 장비도 있습니다. 힘들고 먼지가 많이 나는 작업이죠"라고 소유주 Jean-Paul Simon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현장 작업을 시작한 이후 계속 볼보 장비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효율적이고 유연성이 뛰어나거든요."

장비가 빨리 닳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장비를 2년마다 한 번씩 교체합니다. 가장 최근에 주문한 휠 로더 2대(L120H와 L220H)는 현재 ArcelorMittal 코킹 공장과 강철 용광로에서 석탄과 광물의 하적 및 적재 작업에 쉴 틈 없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평강은 자동차 산업과 강튜브 및 식품용 캔 제조에 사용됩니다. 2009년, 철강 산업에 침체가 있었고 Simon의 표현에 따르면 이 침체는 회사에 '잔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2009년 1/4분기 하룻밤 사이에 50%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위기 이전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회복했고, Simon은 큰 안도의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장비마다 정해진 임무가 있다



Simon은 "이전 상태로 회복하기는 했지만 전 세계 경제와 연결되어 있는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한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훨씬 덜 직선적인 환경인 셈이죠"라고 설명합니다.

이곳 현장에서는 사용되는 장비의 효율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전자 한 팀이 아침 근무를 마치고 다음 팀에게 업무를 넘기기 위해 사무실 밖 공터에 11대의 볼보 장비를 몰고오자 Simon의 얼굴에는 뿌듯해 하는 표정이 역력하게 드러납니다.

용도에 꼭 맞는 장비

각 장비마다 정해진 임무가 있습니다. L50E는 강철 공장 내부의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L180G는 석탄과 광물을 쌓아올리는 일을 하며, L220H는 이를 트럭에 싣는 일을 합니다. Simon은 "L120H는 일종의 잡역부인 셈입니다. 이것저것 필요한 일을 닦치는 대로 해내죠"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지 딜러 Payant PACA(프로방스 알프 코트 다쥐르)의 상업 이사이자 이 회사에 장비를 판매한 장본인인 Olivier Marziano는 볼보건설기계의 홍보관 같은 역할을 해주는 훌륭한 고객이 있다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Marziano는 "포스(Fos) 항구를 찾는 사람들은 모두 저희 장비를 보게 되고 덕분에 저희는 더 많은 고객이 생기게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장비 한 대 한 대가 나중에 새로운 고객을 불러오는 셈이죠."

하지만 Marziano는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하는 고객 업무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신뢰성

Marziano는 "이 회사가 오랜 고객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해야 할 일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Simon의 경우처럼 장비를 하루 24시간 계속 가동시켜야 하는 경우, 장비가 갑자기 고장나는 일이 생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회사에서는 운전자들이 힘든 환경에서 밤새 작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편안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Jean-Paul Simon은 거래 규모가 크다 보니 볼보를 밀어내고 들어오려고 하는 볼보건설기계의 경쟁사들의 접근을 자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Simon은 자신의 부친 André가 40여 년 전에 볼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회사는 아직도 볼보 브랜드의 충실한 고객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지금은 볼보 브랜드에 너무 정이 들어버렸어요"라고 장난기 섞어 이야기합니다. "경쟁사들 중에는 그 습관 같은 정을 때버리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지만 말이죠."

지금은 볼보 브랜드에 너무 정이 들어버렸어요

Spirit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Spirit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공장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스터 클래스

과거 우승자들이 다음 볼보건설기계 마스터스 대회 참가를 적극 권장한다

글: Tony Lawrence

왼쪽부터: Mark Armsworth, Matthew Needham, Billy Heywood, Chris Walker

2015-16년 볼보건설기계 마스터스 대회에 참가할지 고민하고 있는 서비스 기술자나 부품 전문가가 있다면 Chris Walker는 단 한 마디로 이렇게 조언합니다. "도전하세요!" Walker는 영국 북서부 워링턴(Warrington)에 거주하고 있는 부품 전문가로, 2013-14년 마스터스 대회에서 우승한 볼보건설기계 GB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대회를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마스터스 대회는 정말 엄청난 경험이에요. 저는 대회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대회에서 배운 것을 지금은 일상 업무에서 활용하고 있어요. 세계 각지에서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놀랍고 즐거운 경험일 뿐 아니라 제가 살면서 해 본 일 중 가장 치열한 경험이기도 했어요." "참가를 해야 할지 저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두 번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참가를 신청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귀중한 자산

팀 리더 Mark Armsworth, 워링턴 동료이자 친구인 Billy Heywood, Matthew Needham과 함께 팀을 이뤄 우승했던

이 대회에 대한 Walker의 열정은 대회의 대변인인 Johan Klacksell을 기쁘게 합니다. 볼보건설기계 시스템 글로벌 역량 개발(Global Competence Development) 부의 미디어 매니저 Klacksell은 2015년 8월에 시작해 약 13개월간 계속되는 이번 대회의 조직을 담당하는 팀의 일원입니다. 그는 "지난번 대회 참가자가 약 2,500명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참가자를 더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정말 멋진 대회고 그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재미도 있고 흥분되고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 서비스와 부품 담당자들이 얼마나 전문적인지, 자신들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볼보건설기계 비즈니스에 매우 귀중한 자산입니다." 마스터스 대회는 1990년에 팀 대회가 아닌 개인 참가 대회로 시작되었고, 공인 볼보건설기계 딜러 부품/서비스 기술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1차 경선에서는 딜러 단위로 개인 경합을 벌이는데, 온라인상에서 이론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국가 단위, 허브 단위, 지역 단위 경선에서는 합격자들끼리 팀을 이룬 다음 이론 테스트와 실무 테스트를 모두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주, APAC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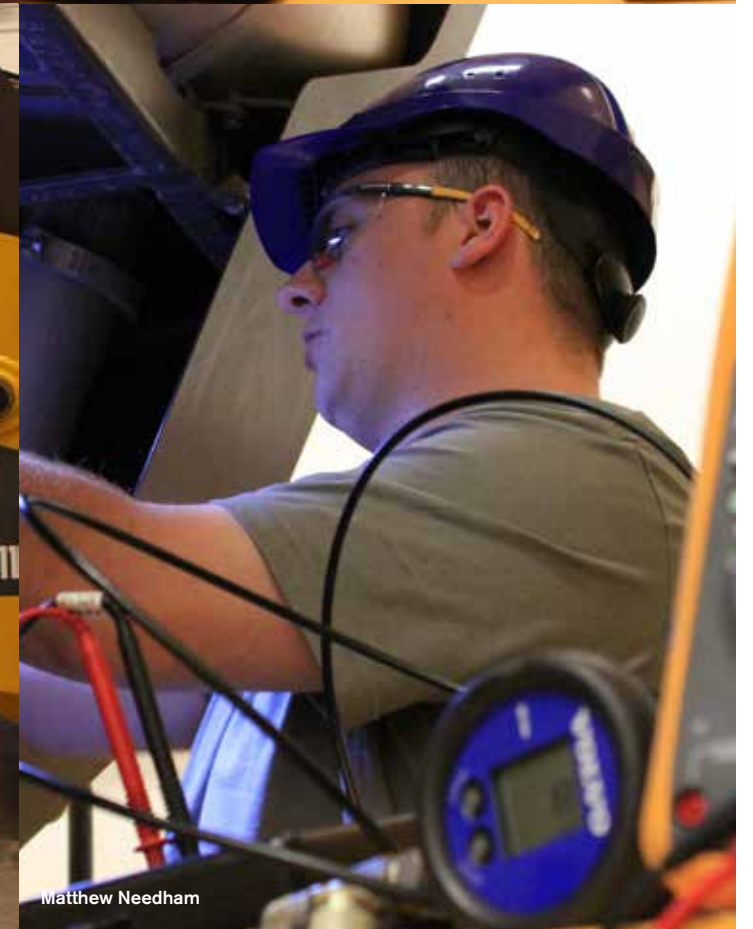
Matthew Needham과 Billy Heywood



Chris Walker



Billy Heywood와 Matthew Needham



Matthew Needham



스웨덴 에스킬스투나에서 열린 2013-14년 시상식 만찬

(아시아태평양), 중국, EMEA(유럽, 중동, 아프리카)로 구성된 지역에서 각각 두 팀씩 선발되어 스웨덴 에스킬스투나에서 열리는 최종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결합 찾기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기술과 지식을 보여 주는 동시에 일을 하면서 프로 정신과 품질, 안전, 환경 보호라는 볼보의 핵심 가치에 대한 실천 의지를 입증해 보여야 합니다. 대회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다양한 장비에서 감춰진 결합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Walker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Billy와 Matt, 저는 아주 오랜 친구 사이입니다. 매년 다음 라운드로 넘어갈 때마다 점점 더 흥분이 고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지만 영국 결승에서 탈락하고 말았죠. 이번에는 전국 챔피언으로 뽑혀 독일과 스웨덴에서 진행되는 다음 라운드까지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결승에

도달했을 때는 정신을 못차릴 정도로 기뻐요. 하지만 장비 1대에서 실수를 했을 때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죠. 결합을 찾기는 했는데 모세 호스가 경첩에 걸리는 바람에 오일이 새어 나왔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를 잘 해서 치명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스웨덴에 가서 볼보건설기계가 돌아가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저희는 1주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정말 대단한 호사를 누렸죠. 심지어 바다에 나가 게잡이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엄청난 성취감을 느끼게 해 준 경험이었어요. Matt는 대회 이후에 영국 제품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처음 볼보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는 구내 마당을 청소하고 창고 일을 도왔어요. 지금은 마스터스 대회에서 우승을 했으니 정말 대단하죠. 앞으로는 부품 감독관이 되어 부서 운영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2015-16년 대회 참가 신청 방법은 www.volvocemasters.com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onstruction Climate Challenge(건설 기후 챌린지)는 WWF(세계야생생물기금)의 Climate Savers 프로그램 실천을 위한 볼보건설기계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건설업계 기후 이니셔티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건설 분야 기후 챌린지(CCC)는 건설업계에서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볼보건설기계가 주최하는 이니셔티브입니다. 볼보건설기계는 업계 대표, 학계 대표, 정치인들 간에 대화를 유도하고, 건설업계가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연구를 위한 기금을 제공하며 기존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볼보건설기계는 볼보 제품과 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 배기 가스를 감소하기 위해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는 어느 한 기업이 가진 자원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도 큰 과제입니다. 1972년 볼보 그룹 회장 겸 CEO인 Pehr G. Gyllenhammar는 "우리는 문제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결책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건설기후 챌린지(CCC)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constructionclimatechallenge.com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결과물

독일 북부 지역에 위치한 볼보건설기계의 하멜린(Hamelin) 공장은 DD105 아스팔트 컴팩터라는 새로운 장비를 처음부터 설계하는 드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냈다

글: Nigel Griffiths

3년간의 개발 과정에는 볼보 전사 차원의 설계 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DD105 아스팔트 컴팩터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인터마트(Intermat)에서 첫선을 보일 때 옆면에는 'Made in Hamelin'(하멜린 제조)라는 마크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제품 개발 팀은 전 세계 볼보 지사에 도움을 청했지만 핵심적인 아이디어와 엔지니어링 전문성은 하멜린의 볼보 공장에서 나왔습니다. 하멜린은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한 '피리부는 사나이(Pied Piper)'에 등장해 잘 알려진 유서 깊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시스템 엔지니어 Michael Kreische는 "2012년 초반에 저희 경쟁사들이 내놓고 있는 제품 구성을 분석하고 있었는데 시장에서 새로운 볼보 제품군이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비 설계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백지에서 시작해서 치열한 의논 끝에 소유주와 운전자가 정확히 어떤 것을 원할지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10톤 무게의 진동식 더블드럼 아스팔트 컴팩터 DD105입니다. 선임 글로벌 시장이자 런칭 매니저인 David Herwarth von Bittenfeld는 이 제품이 "유럽 시장에 선보인 완전히 새로운 최초의 아스팔트 컴팩터"라고 말합니다. "이 제품은 업계 최고 수준의 연료 효율성과 높은 생산성, 성능을 동시에 갖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뛰어난 안목

아스팔트 컴팩터는 새로 만든 도로 표면을 최종 마무리하는 핵심적인 단계에 사용됩니다. 기능성이나 미학적인 면에서 마무리 처리는 완벽해야만 합니다.

하멜린의 볼보건설기계 공장 직원들은 지난 65년 동안 도로 표면 작업 장비를 생산해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 분야에서 첨단 엔지니어링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하멜린 설계 엔지니어들이 중점을 둔 부분은 운전자 가시성, 정비수리 용이성, 연료 효율성이었습니다. 제품 매니저 Antonio Romao는 "아스팔트 컴팩터 운전자는 앞과 뒤에 있는 드럼 롤러와 분사 시스템을 확실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물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표면 끝처리를 망치게 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엔지니어들은 콘셉트 단계에서 소음과 진동 감소를 위해, 그리고 결정적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개선하기 위해 엔진을 운전석 뒤에 두는 것과 같은 주요 설계 문제를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설계 특징 중 하나는 운전자에게 막힘 없는 가시성을 제공하기 위해 받침대 프레임과 기둥 없는 전방향 뷰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설계 시 고려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운전자의 제어력과 편안함이었습니다. 이 제품은 넓은 곡선형 유리를 사용해 드럼과 분사 바를 아무런 장애물 없이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한 롤링을 보장합니다. 운전자 좌석은 요구 사항에 따라 가시성을 한층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젖히거나 회전할 수 있습니다.

정비를 위해 주요 엔진 구성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운전석 뒤에 배치한 엔진에 위로 젖혀 올릴 수 있는 플립업 형태의 후드를 장착했습니다. 운전석의 바닥에는 패딩을 더해 진동을 감소시키고 운전자의 피로감을 최소화했습니다.

프로토타입

DD105 설계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목재로 실물 크기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볼보건설기계의 설계 담당 이사 Sidney Levy는 "프로토타입 제작을 통해 실물 크기를 가늠해 보고 공간적 측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다양한 설계상의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죠. 설계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 운전자의 시선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운전자들이 운전석에 들어가 앉는 데 몇 발자국을 더 걸어야 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년간의 개발 기간 동안 설계 팀은 엔진, 운전석 설계, 소프트웨어 같은 분야에서 DD105 개발에 필요한 도움을 받기 위해 인도와 미국 같이 먼 곳에 있는 볼보 자원을 동원했습니다.

연료 효율은 주요 고려 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DD105에는 소음과 배출 가스는 최소화하면서 연료 소비는 최적화하는 고급 4단계 볼보 D3.8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ECO 모드는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연료 소비를 최대 30%까지 감소시켜 줍니다. 자동 완속 기능은 5초 후에 엔진 →



DD105의 디지털 일러스트레이션



볼보건설기계 설계 담당
Sidney Levy 이사



두말할 것 없이 볼보죠



DD105의 실물 크기 프로토타입



제품 매니저 Antonio Romao(왼쪽)와
시스템 엔지니어 Michael Kreische

Michael Kreische와 Antonio Romao의 사진 © Heinz-Joachim Petrus

속도를 자동으로 완속 상태로 감소시켜 줍니다.
또한 롤러 안에 있는 오프센터(off-center) 설계의 새로운
진동기 시스템은 전력 소모량이 더 적고 운전 시 더 조용합니다.
진동기의 진폭은 도로 상태에 따라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사용자

Levy는 "볼보 설계자라면 아스팔트 롤러를 설계할 때 안전,
연료 효율성과 더불어 인체공학적 측면과 사용자 경험을
언제나 핵심적으로 고려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DD105를 개발할 당시, 운전석 내에서 사용자의 움직임

패턴을 이해하고 그러한 이해를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슬라이딩 시트와 열기 쉬운 창문 같은
기능은 악천후 에서도 운전자 효율과 편안함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또한 DD105를 설계하는 데 있어 노랑과 회색의 비율을
채고하는 방식을 계속 적용해 시각적으로도 한층 더
다이나믹하고 성능에 걸맞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보면 바로 작동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라고 Levy는 말합니다. "볼보건설기계 설계팀은 DD105를
통해 기능성과 현대적 느낌을 모두 만족시키는 놀라운 설계
결과물을 탄생시켰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볼보죠." ❧

생산성 높은 포장작업



볼보건설기계의 P8720B ABG 피니셔는 업계 최고의 생산성과 정밀 포장
기능을 제공합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400mm 두께의 매트를 최대 폭 9m로
생성하는 이 피니셔에는 이중 탬퍼 스크리드가 장착되어 있어 견줄 데 없는
다짐 작업 성능을 제공합니다. 시멘트 처리된 기층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P8720B는 높은 밀도의 탁월한 연속 포장 성능을 제공합니다.

볼보 P8720B ABG 피니셔는 매끄럽고 균일한 포장을 보장합니다.
www.volvoce.com



비디오 http://opn.to/a/SP_PAV-B_B





매끄러운 성능

하멜린은 피리부는 사나이로만 유명한 곳이 아니다. 볼보건설기계의 주요 제조 센터 중 하나가 위치해 있는 이곳은 고도의 엔지니어링 역량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

글: Nigel Griffiths



이 공장은 글로벌 CoE(CENTRE OF EXCELLENCE)이다

사진: Heinz-Joachim Petrus



총 관리자 Dirk Heusing

독일 북부의 그림 같은 중세 도시 하멜린에 자리잡고 있는 볼보 공장은 이 지역의 주도도 하노버(Hanover)에서 단 45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독일 엔지니어링 기술과 기술적 역량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하멜린 공장은 65여 년 동안 최고 품질의 도로 포장 생산해오고 있습니다. 과거 ABG(Allgemeine Baumaschinen-Gesellschaft mbH)의 소유였다가 2007년에 볼보건설기계가 인수한 이 공장은 아스팔트 피니셔와 콤팩터 설계 및 제조 분야에서 글로벌 CoE(Centre of excellence)로 손꼽힙니다.

이 공장은 생산 구역을 83,000m² 추가하고, 고객 교육 센터를 120,000m²로 늘리는 등 획기적인 바뀌었습니다. 공장을 글로벌 볼보 네트워크와 연결하기 위해 새로운 IT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변화

숙련된 직원들도 볼보 생산과 품질 관리 방법을 새로 배웠습니다. 볼보의 작업 방식으로 바뀌아가는 것은 공장에서 일하는 5백 명의 근로자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러한 변화는 이 공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공장은 인근 지역사회 출신의 근로자들로 이루어진 안정적인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관리자 Dirk Heusing은 "하멜린 공장의 차별화된 강점은 바로 직원들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엔지니어링과 높은 제조 및 구매 기준이 직원들의 몸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동기 부여가 강하고 고도로 숙련되어 있습니다. 정식 교육뿐 아니라, 선배 직원들이 젊은 후배 직원들에게 기술과 경험을 전수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은 제품뿐만 아니라 회사와도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큰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Heusing은 "품질, 신뢰성, 안전이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라고 덧붙입니다. "모든 사람이 필요한 기준에 대해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해야 하는 정상적인 일일 뿐입니다."

볼보 하멜린 공장은 주요 부품들을 직접 제조하여 그 품질을 보장합니다. 실제로 볼보 제품을 모두 만드는 데는 18,000여 종의 활성 부품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피니셔의 핵심 부품인 스크리드도 포함되는데,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스크리드는 전 세계 포장 하청업체들로부터 그 우수성을 높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제품 개발은 장비의 신뢰성, 운전자의 편안함, 관련 환경적 측면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환경 보호 분야는 핵심 주안점으로, 연료 소비, 소음, 배기 가스 배출량 등의 감소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널리 사용되고 있는 품질 관리 시스템 SAP(Systems, Applications and Products)를 이용한 제조 계획 수립, 엄격한 제조 공정 관리, 빠짐없이 적용되는 최종 검사 등이 모두 볼보의 품질 기준을 보여 줍니다.

Heusing은 "저희는 정확히 고객의 요구 사항에 맞춰 제품을 제조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피니셔와 콤팩터 생산조 라인 이용도를 최적 수준의 생산 능력에 맞출 수 있습니다."

봄의 열기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전 세계로 출하되며, 뛰어난 유연성과 소량 생산 방식에 따라 생산이 진행됩니다. 도로 포장은 계절 활동인 만큼 공장 생산량의 70%가 한 해의 상반기에 집중됩니다. Heusing은 "나머지 기간 동안은 인력 운용에 상당한 신축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 성수기 기간에는 시간에 따른 크레딧을 지급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수기는 추가 교육을 실시하고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저희는 교육 훈련과 직원 계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실제로 아주 체계적인 견습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Heusing은 본인도 공장에 견습생으로 들어와 최고 자리까지 올라온 만큼 견습 제도에 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 프로그램은 미래의 근로자들이 앞으로의 성공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 수 있도록 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하멜린 공장의 현대적인 고객 서비스 및 교육 훈련 시설에서는 포괄적인 제품 교육 과정과 기술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유럽 전역과 다른 지역에서 오는 서비스 트레이너, 기술자, 장비 운전자, 포장 전문가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하멜린 엔지니어들이 지속적으로 도로 건설 작업자들로부터 제품 설계에 필요한 귀중한 피드백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합니다.

하멜린에서는 고객 맞춤 제조가 작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공장은 경사면부터 힘든 도로 깔처리, 높은 성능을 요하는 프로젝트 등에 이르기까지 특수 용도를 위한 다양한 맞춤 장비를 개발해 생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은 실제 적용면이나 어려운 환경 또는 특수한 조건 등으로 인해 각각 도로 표면 요구 사항이 다릅니다. 이 공장에서는 솔루션 개발을 위해 교차기능팀을 구성하고, 고객과 딜러 공급업체가 모두 함께 참여합니다. Heusing은 "비표준 솔루션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엔지니어링 기술과 도로 포장이라는 영역 사이에 연결 고리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저희 직원들은 고객의 요구 사항에 맞게 기술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맞춤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헤드라인을 장식하

2014년, 볼보 하멜린 공장은 싱가포르에 있는 포물라 윈 그랑프리 레이스 트랙 표면을 재포장하는 일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싱가포르 그랑프리는 마리나 베이(Marina Bay) 주변의 거리 주행로에서 치러지는 경주입니다. 경주가 치러지기 이 주 전에 고성능 아스팔트 믹스로 주행로를 재포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 표면은 F1 경주차들이 시속 320km로 달려도 문제가 없도록 완벽하게 평평해야 했습니다.

공사를 맡은 싱가포르 업체는 이 작업에 볼보 피니셔 두 대를 배치했고, 볼보 하멜린 공장은 VB 78 ETC 스크리드가 장착된 ABG6820 트랙 피니셔(최대 폭 8m) 두 대를 준비했습니다.

작업팀과 볼보 장비가 자정부터 오전 5시 사이에 작업을 진행하면서 마리나 베이 주행로를 재포장하는 작업은 단 일주일 만에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그 결과 9월의 그랑프리 대회를 위한 이상적인 도로 표면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랑프리에서는 영국의 Lewis Hamilton이 독일의 Sebastian Vettel에게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헤드라인 장식한 또 하나의 도로 포장 프로젝트는 세계에서 단일 활주로 상업 공항 중 가장 교통량이 많은 영국 개트워 공항의 활주로를 포장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작업은 11년마다 한 차례씩, 공항 폐쇄를 피하기 위해 야간에 진행됩니다.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볼보 장비들은 투광 조명 불빛 아래에서 기존의 활주로 포장을 제거하고 고품질의 아스팔트로 교체하는 작업을 항공편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완수해냈습니다. ☑

완성된 개별 도로보다 중요한 것은
적기에 성공적으로 완료된
프로젝트입니다.

고객지원 서비스
계약



고객 지원 서비스 계약을 활용하면 도로 건설이나 채석장 작업 등을 수행할 때 가동 시간 극대화, 전문 노하우, 생산성 향상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볼보 영업지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인프라 건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www.volvoce.com 에서 확인하십시오.

Volvo Construction Equipment



키를 잡고

볼보 오션 레이스의 Knut Frostad CEO가 대회에 대한
자신을 열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얘기한다 ▶

글: Julia Brandon

볼보 오션 레이스 CEO Knut Frostad(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중국 산야에서 잠시 시간을 내
Extreme 40 쌍동선을 타고 항해에 나섰다
© Maria Muina/MAPFRE

"볼보 오션 레이스는 지구상에서 만날 수 있는 궁극의 도전입니다." Knut Frostad가 망설임 없이 말합니다. "이는 실외에서의 극도의 신체적 노력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과의 밀접한 협업을 요하는데, 이러한 협업 자체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경우는 정말 드물죠. 다른 어느 것보다 비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993년부터 2006년 사이에 스키퍼로 두 번, 팀원으로 2번, 모두 네 번에 걸쳐 레이스에 직접 참가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 CEO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Frostad(48세)는 경험자로서 의견을 들려 주기에 적합한 인물입니다. 1988년과 1992년 각각 서울 올림픽과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참가하면서 다진 수년간의 항해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그는 여전히 항해, 특히 레이스에 대한 초기의 열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대회의 엄청난 규모, 레이스 참가팀들이 겪는 극심한 압박감, 그리고 9개월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참기 힘든 상황에 대해서 아직도 열정을 간직하고 있는 Frostad CEO는 생존을 위한 중요한 필수 전제 조건으로 "바다와 야외활동에 대한 열정"과 "자기 인식"을 꼽으면서 이 레이스에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해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중독

그는 농담으로 "레이스는 아주 좋아하거나 아주 싫어할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결혼한 사람이 동시에 하루 24시간 쉴 틈

없이 일해야 하는 정말 힘든 직업을 갖고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라고 말합니다. 레이스에 단단히 매료된 Frostad CEO는 그 드라마틱함과 아드레날린을 솟구치게 만드는 매력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마약과 비슷해요. 수개월 동안 하루 하루 24시간씩 매일 하다보면 중독이 돼서 자꾸 반복해서 하게 하는 거죠. 항상 이기고 싶고, 다시 도전해서 더 잘하고 싶죠. 정말 비할 데 없이 독특한 경험이에요. 스트레스 수준이 엄청나게 높고,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는 엄청난 도전인 데다 경주까지 해야 하니까요. 정말 인간으로서 엄청난 일을 해내는 거죠.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게 되고, 지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보다 더 힘든 상황까지 자신을 밀어붙이게 됩니다. 저에게는 그 점이 정말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어요."

레이스는 아주 좋아하거나 아주 싫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르웨이에서도 물에 가까운 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Frostad CEO는 열정적인 스포츠맨에서 성공한 비즈니스맨이자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주는 멘토로 성공적인 변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리더십 기술이 스키퍼로서의 경험 덕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숨을 곳은 없다

"볼보 오션 레이스에서 스키퍼 역할을 했었고 그 역할을 잘 해냈다는 것이 아마 제가 평생 덕을 보게 될 가장 큰 성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 위에서는 들어가서 숨을 사무실이나 다른 사람들과



Frostad가 ProAm 레이스에 VIP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 Amalia Infante/Volvo Ocean Race



Frostad(오른쪽)이 기상전문가 Marcel Van Triest와 함께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Ainhua Sanchez/Volvo Ocean Race

자신을 분리해 줄 직책 같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팀의 일원일 뿐이고, 다른 팀원들은 제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잘 못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환경이기 때문에 반드시 맡은 일을 잘 해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살아남지 못할 것이 분명하죠."

Frostad CEO는 자신이 그날그날의 레이스 전략, 관리, 계획 수립을 스스로 직접 해보고 큰 그림과 세부적인 측면에 모두 관여하려고 하는 스타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사업적인 통찰력과 탁월한 스포츠 기량을 결합시키면서 2014-15년과 2017-18년 볼보 오션 레이스를 위해 새로운 통합 디자인 보트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 당시 변화와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설계 관점보다는 레이스의 재정적 조건과 관련해 상당한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새로운 보트를 강력히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Frostad CEO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목표의 결과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액의 스폰서 계약을 따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레이스 중 보트에 발생한 손상에 기가 꺾이고, 만만치 않은 팀 비용에 직면한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급격한 변화'를 도입하는 것뿐이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변화를 적용해가면서 진척이 이루어졌고, 팀 비용을 50%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동등한 조건

Frostad는 "통합 설계 보트로 바꿈으로써 여러 가지 다른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보트가 더 강해졌기 때문에 신뢰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또한 매우 불리한 상황이 아니라 최소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도구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새로운 기업들이 레이스 참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여성들도 참가에 관심을 갖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전 보트들은 다루는데 너무 많은 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 TV와 같은 장비도 보트 설계 후가 아니라 설계하기 전에 고려함으로써 선상 미디어 장비를 함께 개선했습니다. 모든 스포츠가 그렇듯이 사람들이 특정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 익숙하고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파손율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팀들 사이에 각 구간을 승리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욱 더 손에 땀을 쥐는 레이스가 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

지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보다 더 힘든 상황까지 자신을 밀어붙이게 됩니다



Frostad가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레이스 빌리지 개막식에서 촬영인사를 하고 있다 © Ainhoa Sanchez/Volvo Ocean Race



Claudio Luca Piazzi가 신형 볼보 L250G 휠 로더 운전석에 앉아 있다

그 결과 관객의 관심이 크게 늘었고, 전체적으로 일반인들의 레이스 경험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지평을 넓히며

대회를 재정적 침체에서 구해내고, 경주의 매력을 되살려낸 Frostad CEO는 레이스의 미래가 세계 규모로의 확대와 미디어 잠재력 구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올해 우리가 중국에 투자한 대규모 자본이 이제 그 결실을 맺기 시작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중국 내 미디어의 관심 수준이 매우 높은 상태이고, 앞으로도 중국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미디어 관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레이스 구간과 관련해서는 현재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중동 지역도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비슷하게 유지될 예정이지만 다음 대회에서는 카디프를 경주 구간으로 삼아 영국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2005-06년 이후 영국에서 경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경주에서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측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우리 대회는 일반인들이 휴대전화와 iPad 등을 통해 직접 보트를 확인하고 실시간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점점 더 라이브 이벤트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보트로부터의 위성 전송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계속해서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만 찾으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브라질, 이탈리아, 영국팀도 대회에 참가해 그쪽 시장의 대중적 관심도 확대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해를 그만둔 뒤 현재 여가 활동으로 카약과 스키를 즐기는 Frostad CEO는 레이스에 참가하는 팀들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대회와 세일링이라는 스포츠, 그리고 그 스포츠에서 배운 인생의 교훈에 대해 열정적인 자세와 겸손함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저의 가장 큰 취미 중 하나는 인용구들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항상 무엇인가 더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간단한 것이지만 인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훌륭한 일을 하는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 보았지만 훌륭하다는 것의 정의는 살면서 자꾸 바뀝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스포츠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인도주의적인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과 함께 항상 변화하고 진화해 나가는 것이죠." ❖

volvoceanrace.com을 방문하시면 최신 소식과 레이스 관련 동영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레이스에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커뮤니케이션이 될 것입니다

이텔리언 잡

휠 로더 전문가인 Claudio Luca Piazzi에게 동급 최강의 장비들이 가장 큰 동력이다

글: John Bayliss

사진: Jennifer Boyles

35세의 Claudio Luca Piazzi가 상당한 열정을 보이는 대상은 자동차와 모터사이클 운전이지만, 그가 가장 아끼는 장비 중 하나는 바로 신형 볼보 L250G 휠 로더입니다. 실제로 Piazzi는 이 장비가 이탈리아 북부 까발레제(Cavalese)의 건설 회사 Misconel에서 맡고 있는 업무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피에메 계곡(Fiemme Valley)에 있는 Misconel 사무실은 이탈리아 북부 전체에 걸쳐 이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건설 및 정지 작업과 더불어 이 회사의 핵심 업무 영역 중 하나가 바로 원자재를 아스팔트 같은 다른 제품으로 가공처리하는 것입니다. Piazzi는 이 분야에서 휠 로더 책임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Misconel의 다양한 일반 건설 또는 정지 작업 계약에서 나오는 자재들은 일단 덤프 트럭을 이용해 까발레제로 가져온 다음, 모래 또는 자갈 같은 제품으로 가공됩니다. Piazzi는 L250G 휠 로더를 몰고 가공처리를 기다리고 있거나 이미 새 건축 자재로 바뀐 거대한 흙더미들 사이를 오르내리며 돌아다닙니다.

파일 드라이버

Piazzi는 가공 전 흙더미를 콤팩터로 운반하기 전에 다양한 자재들을 선별하는 일을 합니다. 그는 휠 로더의 효율적인 동력전달계 덕분에 작업을 훨씬 더 매끄럽게 수행할 수 있을 →

운전자 코너

뿐만 아니라 복잡한 야적장 안을 기동성 있게 운전해 돌아다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여러 프로젝트 현장에서 들어와 엄청난 높이로 쌓이는 각종 골재 더미를 줄이는 동시에 가공된 건설 원자재 제품을 쌓아 새로운 더미를 만드느라 바쁩니다. 덕분에 이곳의 풍경은 시시각각 바뀝니다.

L250G의 강력한 차축이 높은 토크를 분배해 작업에 필요한 뛰어난 생산성을 충족시킵니다. 또한 차량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작업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Piazzi는 볼보의 장비가 이 같은 험한 작업 환경에서 방대한 하중을 옮기는 데 꼭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L250G는 이전 모델들에 비해 버킷 사이즈가 더 크고 강력합니다. 볼보 Z바 연결구를 사용하여 인양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자재든 무거운 하중에 필요한 힘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기술 덕분에 운전자가 자재를 훨씬 신속하게 싣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Piazzi는 "새 모델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L250G 모델이 나오면서 덤프 트럭 한 대와 다른 휠 로더를 대체할 수 있어서 작업 효율성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이 장비로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Piazzi는 특히 운전석이 마음에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새로운 기술 덕분에 운전자가 자재를 훨씬 신속하게 싣고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OptiShift 기술로 훨씬 빨라졌습니다. 훨씬 신속한 작업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라고 말하면서, 운전석이 조용하기 때문에 일상 업무 중 스트레스와 긴장이 훨씬 덜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좋은 스포츠

Piazzi는 Misconel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Lorenza와 6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그는 계속 사시사철 관광객들에게 인기 높은 이탈리아의 돌로미테 산맥에 위치한 피에메 계곡에서 살고 있습니다. Piazzi는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외에, 트렌토(Trento)까지 차로 단 50분, 베로나(Verona)까지 단 90분이면 갈 수 있다는 사실도 무척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돌로미테 산맥의 스키 슬로프에서 가까운 곳에 살다보니 그가 겨울 스포츠를 특히 좋아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다. Piazzi는 스키나 모터사이클을 타지 않을 때는 달리기를 즐깁니다. 하지만 건설업에 대한 그의 열정이 개인적 생활에까지 스며들어 소규모 건물이나 장비 프로젝트 작업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음악도 그가 긴장을 푸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클래식부터 락까지 다양한 음악을 듣습니다." Piazzi는 집에서 직장까지 통근 시간이 짧은 데다 매우 효율적이고 편안한 L250G 휠 로더 덕분에 일과 개인 생활 사이에 매우 바람직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



볼보 L250G 휠 로더는 이전 모델에 비해 버킷 크기가 더 큼니다



더 필요하세요?

이제 더 다양한 방법으로 Spirit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모든 Android 및 iOS 기기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동영상 등 다양한 추가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에서 • 전화기에서 • 태블릿에서

volvospiritmagazine.com

Spirit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Spirit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동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더가

작아졌어요!

로더 축소판

사진의 ®테크닉 모델은 실제 놀이용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동영상

레고® 테크닉의 새로운 동영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장난감 회사의 디자인 팀이 최신의 미니 마블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youtube.com/GlobalVolvoCE](https://www.youtube.com/GlobalVolvoCE)에서 확인하세요

Behind the Design
By LEGO® Technic

Volvo Construction Equipment

